7월 문화인물 도선스님 추모

선사의 참모습 되찾는 종단차원 준비 '전무'

7월의 문화인물은 도선스님(827~898)이다. 문체부는 '한국인의 재발견' 일환으로 년초에 월별로 각 분야별 문화인물을 선정, 달마다 문화인물을 기리는 다양한 행사를 벌인다. 그동안 불교계 인물로는 91년 만해 한용운스님 92년 〈삼국유사〉의 저자 일연스님 93년 원효스님 등이 선정돼 범종단적인 대대적인 추모법회와 다채로운 행사로써 불교계가 배출해낸 위대한 선각자들의 삶과 사상을 재조명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그런데 올해 도선스님의 달을 앞두고는 문체부가 주도하는 의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종단차원의 이렇다할 행사가 준비되지 않고있어 뜻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도선사·전통불교硏 학술회의 계획 '체면유지'

중앙승가대가 추모재 자료전 세미나 등을 계획했었으나 대학 내부문제와 재정상의 이유로 행사자체가 유보된 상태. 조계종 총무원에서는 이렇다할 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93년 6월 원효의 달에는 조계사와 중앙승가대학 공동주관으로 조계사에서 종단대표스님들이 모인 가운데 추모법회가 열려 원효스님을 기리는 노래까지 작곡돼 불리워졌고 추모재도 봉행됐다. 또한 원효사상관련 강연회가 7차례나 열리고, 기념백일장 유적지 답사 자료전 등의 행사가 여러곳에서 벌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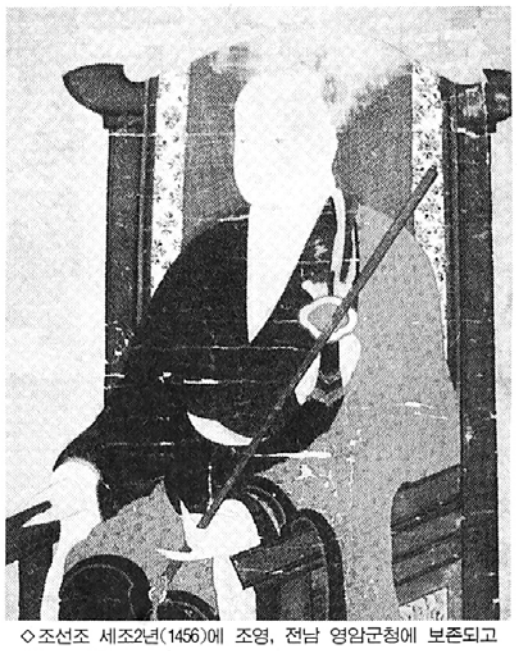
현재 도선스님관련 행사로 교계에서 유일하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 도선사(주지 동광)와 대한전통불교연구원(원장 김지견)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학술회의 '도선스님의 생애와 사상'이다. 오는 7월 31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중국사회과학연구원의 황심천교수와 일본 동경대 가마다 시게오 교수가 참가하며 국내에서 김지견 허흥식 양은용 한기두 최창조 이광준 교수 등과 백운스님 김정우 성춘경씨등 10여명의 국내학자가 참여해 각 방면으로 도선스님을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어서 그나마 불교계의 체면을 세워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선스님의 출신지인 전남 영암군청과 영암문화원이 공동으로 도선로(道詵路: 도갑사에서 구림까지 3㎞)명명, 도선사상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고 국립중앙도서관주관 도선스님 자료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이같이 도선스님행사를 종단이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풍수지리설의 대가로 심지어 술승(術僧)으로까지 왜곡된 도선스님의 잘못된 이미지를 바로잡을 계기를 만들기는 커녕 교계가 심정적으로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지견박사(정신문화연구원)는 "도선스님은 옥룡사에서만 35년을 수행한 선사중의 선사"라며 불자들이 도선스님의 왜곡된 이미지를 바로잡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도선스님의 풍수지리는 중생들의 보다나은 생활을 위한 방편이었기 때문에 그것만을 부각시켜 도선스님을 터부시하기보다는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바로잡아 중생구제와 불국토실현의 원력을 지닌 선사로서의 본모습을 되찾아주자는 것이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과)는 "묘터나 잡는 풍수술의 대가로만 잘못 알려진 도선스님이 실은 구산선문중 하나인 동리산파의 대선사이며 신토불이 정신을 활용해 혼란한 신라말, 중생구제 자비행에 본격 나선 대보살"이라며 문화인물 선정을 계기로 일반에 도선스님의 진면목을 적극 알리자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조선조 세조2년(1456)에 조영, 전남 영암군청에 보존되고 있는 도선국사 영정.

◇매년 단오날 시연행사로 정례화하는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영산재 시연 '단오축제'로

영산재보존회 주최, 20일 봉원사서
송암·벽응스님등 1천여명 동참할듯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가 단오인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신촌 봉원사에서 대대적으로 시연된다. 부처님이 영축산에서 제자들뿐 아니라 제범천왕 보살 천룡 야차 아수라 등 수많은 대중들에게 설법하던 모임을 영산회상이라 한다. 이때 하늘에서는 만다라꽃이 내리고 천녀가 내려와 꽃과 향, 기악과 가무로 공양올렸으며 일체대지가 광명과 환희에 휩싸여 진동했다. 이와 같은 환희심에 찬 광경을 상징화한 의식절차를 영산재라 한다.

영산재보존회(회장 대운)가 주최하고 한국불교태고종 봉원사가 주관해 시연되는 영산재는 그동안 정해진 기간없이 봉행되었지만 이번 제8회 영산재부터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을 위로하는 취지로써 앞으로는 단오절인 음력 5월5일, 양력 6월에 매년 봉행된다.

법회는 1부 타종, 시련 대령관욕, 괘불이운, 법어,식당작법 2부 영산합향, 할등, 할화, 불찬, 대직찬, 지심이, 삼귀, 중직찬, 보장취, 소직찬, 오덕사, 합장게, 고향게, 대개게, 관음청, 복청게, 천수바라, 대청불, 삼례청, 사부청, 단청불, 일체공경, 향화게, 삼원아게, 지심귀명, 구원겁중, 상래가지원차성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천도재 등 일반 불교행사에서 볼수 있는 약식 영산재와 달리 전통의 식대로 여법하게 재현하는 이번 시연행사에는 무형문화재 제50호 보유자인 송암 벽응 일응 지광스님과 전수교육보조자스님 2명 이수자스님 18명 전수자 9명 준회원 135명 등 영산재보존회 스님들과 신도등 1천여명 이상이 동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산재보존회장 대운스님은 "매년 단오날을 기해 봉원사에서의 영산재시연을 정례화함으로써 불자는 물론 전국민이 영산재에 관심을 갖는 국민적 행사로 승화시키겠다"며 "내년에는 35년만에 3일영산재를 시연, 전통의식을 보다 완벽히 재현해 보겠다"고 밝혔다. 〈숙〉

교성곡 '나누는 기쁨' 작곡 이종구 교수

"총11곡 2시간 완창 대서사곡 10년 작업끝 대중에 회향"

"법정스님께서 균여스님의 향가 〈보현십원가〉를 현대인에 맞게 번역해 소책자로 내셨는데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아 불현듯 곡을 붙여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가 84년이었는데 성악가 이정지씨의 목소리로 취입 테잎으로 냈습니다. 그후 10여년간 곡을 손질해 교성곡형식으로 새로 구성해 이번에 무대에 올린 것이지요."

지난 14일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창단 10주년을 맞은 천태종 금강불교합창단에 의해 공연된 여러 곡중 '나누는 기쁨'이 특히 크게 박수를 받았다. 객석에 앉아 이를 감상한 이종구교수(한양대 작곡가)는 무척 감개무량하다는 표정. '나누는 기쁨'은 모두 11곡으로 짜여진 대서사곡으로 완창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린 대곡. 박재완씨(동국대 교수) 지휘로 금강불교합창단과 동국대합창단 4백여명, 국악오케스트라에 의해 연주되고 김성녀 송창식씨의 독창, 디딤무용단의 춤과 스님들의 작법이 곁들어져 한층 장엄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종구교수는 지난해 백제가 불교를 비롯 문물을 일본에 전해준 과정을 주제로 한 오페라 '구드레'를 공연해 호평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극적이면서 깊은 감동을 줄 수 있는 불교 소재 오페라, 교성곡 등을 쓰고 싶다는 원력을 내보였다. 〈경〉

문화 소식

동국불교미술인전
25일까지 공평아트센터

동국대부속 불교종합병원건립기금마련 제2회 동국불교미술인전이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종로 공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다. 동국미술인회주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불모 석정스님 목정배교수의 작품과 허길룡 김화수 박찬수 김익홍 김의식 곽동해 김도경 김용섭 이진형 정병국씨 등 30여 회원의 불화와 조각작품들이 전시된다. (02)733-9512

'그것은 목탁구멍속…'
광주 전국연극제 참가

광주에서 열리는 제14회 전국연극제에 이만희씨의 작품 '그것은 목탁구멍속의 작은 어둠이었습니다'가 6월19일과 26일 경남대표 극단 마산과 충북대표 극단 청년의 공연으로 각각 참가한다.

오는 28일까지 전국 14개 시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우정의 경연을 벌이는 전국연극제에는 각 지역대표극단들이 하루 한작품씩 무대에 올린다. 공연문의 (062)224-0756, (02)760-4573

불심시심 〈54〉

분향과 예배뿐

寡臼香山底(과구향산저) 묘향산 밑 오두막살이
何人識得渠(하인식득거) 누가 너를 알아 주었나
雲藏身不露(운장신불로) 구름에 잠긴 몸 드러나지 않고
月入夢初除(월입몽초제) 달에 든 꿈 처음으로 깨다
履踐猿爲伴(이천원위반) 발길은 원숭이가 친구되고
修持鶴起余(수지학기여) 선정에 든 나 학이 깨우다
焚香與禮拜(분향여예배) 분향과 예배로
晨夕更無餘(신석갱무여) 아침 저녁 딴 일은 없어

이 시도 월저대사의 시이다. 묘향산에서 우연히 읊었다는 시이다. 조용한 선원생활을 노래하였다. 절구속같은 오막살이다. 이러한 궁벽한 생활을 알아 줄 이가 많지 않다. 몇 사람이나 이런 생활을 알아줄까. 알아주기를 바라서가 아니라, 알아줄 이가 있을까 두려운 것이다. 속세인의 앎이 수도에 득이 될 것이 없다.

몸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라는 처지에서 구름이 가려주니 더더욱 몸이 감추어지기에 안성맞춤이다. 구름이 감추어 준다 했으니 속세의 처신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속인의 처지로는 이런 경지를 그저 신선이라 할 뿐이다. 달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은 현실을 초탈하는 이상향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요, 때로는 꿈의 동경으로 여겨 현실과는 동떨어진 세계로 바라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곧바로 꿈의 세계로 끌어당기고 있다. 그러나 그 꿈에 든 달이 꿈과 함께 깨고 있는 것이다. 현실은 현실이지 꿈으로만 오래 머물 수는 없다.

그러기에 현실세계로 발길을 돌려 본다. 거기에는 다시 세속의 사귐이 아니라, 원숭이라는 가상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다. 속세에 무젖지 않기 위함이다. 나의 정근 수양에도 백학과의 동반으로 청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등장한 원숭이나 학은 선사의 청정한 자태를 유추시키려 함이다. 나들이 할 때는 원숭이이고, 참선할 때는 학이다.

움직일 때는 자연과 더불어 하고, 선정에 들면 예배와 분향이 일상사의 전부이다. 그러하니 아침 저녁의 예불 분향 이외의 일이 있을 것이 없다. 이것이 선사의 일상사이건만, 이 시의 제목을 왜 우연히 읊는다 했을까. 평범한 일이 바로 평범하지 아니한 진리이건만 평상시에는 알지 못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게 되는 것이 역시 또 일상사이다. 이것이 바로 우연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재 단신

국보급 오어사 범종 6개월째 방치

지난해 11월 포항시 남구 오천을 오어사 인근저수지에서 발견된 국보급 고려범종이 발견된지 6개월째 방치되고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경주문화재연구소는 지난 10일 오어사 범종이 고려중기의 것으로 문화재위원들의 감정결과 국보급 문화재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았으나 지금까지 녹처리 등 아무런 대책없이 방치되고 있어 보존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항시는 발견당시 범종표면에 새겨진 오어사(吾魚寺)라는 글귀로 보아 범종의 소유주가 오어사인만큼 사찰측에서 보존처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오어사측은 보존처리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맥끊긴 무형문화재 20여종목 인정

기능보유자의 사망으로 맥이 끊겼던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들이 대폭 부활될 전망이다.

문화재관리국은 지난 10일 승무, 관소리 등 20여개 종목의 전수후보자들을 올해 안에 중요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음악분야에서는 승무(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등 8개 종목 9개 유파를 비롯해 공예기술분야에서는 나전장(중요무형문화재 제10호)등 11개 유파가, 관소리(중요무형문화재 제5호)는 후보자 7명이 올해중 기능보유자로 인정된다.

"비를 맞고 있는 부처님이 안타깝습니다"
관동 제일도량 강릉 보현사 대웅전 기와불사에 즈음해

관동 제일도량 강릉 보현사는 신라 진덕여왕 4년(650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했고 신라 경애왕대 국사 낭월 대사에 의해 중창된 유서깊은 고찰입니다. 창건 당시 지장선원으로 불린 기록으로 미루어 수행과 기도도량으로 이름을 떨쳤던 보현사는 조선조 신사임당이 이곳에 와 기도를 한 후 대학자 이율곡을 낳은 일화로도 유명합니다. 현재의 보현사 대웅전은 건축양식과 삼간의 신장상회화수법으로 보아 조선 후기 시대 건립된 것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의 겹처마와 팔작지붕의 다포집 형태는 뛰어난 예술미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현사는 보물 제192호로 지정된 낭원대사 오진탑비를 비롯, 알려지지 않은 귀중한 문화재를 다수 소장하고 있는 역사적 전통 사찰입니다. 이에 따라 소승이 주지로 부임한 이후 대대적인 중창불사에 착수해 과거의 사격을 다지는 한편 6.8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사찰 진입로 포장에 심혈을 기울여 신도들의 참배를 돕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현사는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이 오래돼 기와가 낡고 부서져 비가 새 유서깊은 고찰로서의 품위를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내부는 보물급 삼존불과 탱화가 봉안돼 있어 자칫 빗물에 훼손될 위험한 상황입니다. 본사는 이에 따라 대웅전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고찰로서의 위의를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동기와 불사를 전개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수행과 기도도량으로 문호를 개방하는 한편 불법외호에 더욱 매진할 각오입니다. 이러한 본사의 의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뜻있는 불자님들의 정성어린 성원과 동참을 기대하고자 합니다.

■동기와 불사 1구좌당 10,000원 ■은행 온라인 : 국민은행 : 302-21-0831-596
농 협 : 255-02-376976
예 금 주 : 김 병 환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문의처 : (0391)42-9437

보현산 보현사
주지 도 완 합장

중흥사 불상 점안 및 봉불식 안내

귀의삼보 하옵고 부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복 많이 받으시고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도 드립니다.

중흥사는 조계종, 태고종을 위시해서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각 종단의 중흥조이신 태고 보우국사께서 주석한 근본도량이였습니다. 국사께서는 五敎九山을 통합하여 조계종풍을 크게 선양한 관계로 조계종 등에서 종조로 추앙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태고 보우국사는 한국불교 전통종단의 종조요 동국사의 근본도량이던 중흥사지는 폐사가 된 한국불교 전종단 종가의 터인 셈입니다.(중흥사 경내에는 태고보우국사의 사리탑:보물 제711호 탑비:보물 제611호가 있습니다) 중흥사지는 임진왜란 때 서산(西山) 사명(四溟)대사께서 전국 승군을 총지휘하시던 곳이며 승군대장 팔도도총섭(僧軍大將八道都摠攝) 성능(性能)스님이 북한산성을 축성하여 주석하신 호국의 도량이요 구국의 성지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부처님의 가호와 원력을 세운 불자님들의 많은 성원으로 서울 북한산록에 위치한 중흥사도량(중흥사지:기념물 제136호)에 조계종 전종정이시던 서암(西庵) 큰 스님을 조실로 모시고 청암(靑岩) 큰스님을 이사장으로 모셔서 중흥사 복원을 위한 대작불사를 시작하여 우선 임시법당을 마련하여 불상 점안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부담없이 참배하고 번뇌의 괴로움에서 해탈하여 안녕과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성스러운 대도량으로 중흥사를 복원하려고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는 많이 동참하시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 소:고양시 북한동 259 한국불교중흥회 중흥사 법당
점안식 일시:1996년 6월23일(음5월8일) 정오 ※일요일
전 화:(02)355-4488, 357-7744
팩 스:(02)357-7744

한국불교중흥회 중흥사 조 실 서 암 큰스님
한국불교중흥회 중흥사 이 사 장 청 암 큰스님
한국불교중흥회 중흥사 주 지 명도각 스님
한국불교중흥회 중흥사 신도회장 이범이
한국불교중흥회 회 장 허봉정 합장

※교통편: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하차(북한산방면 출입구 이용) 시내버스 156번 북한산행 승차 북한산 입구에서 하차 중흥사 봉고차 이용 종점에서 내려서 도보로 중흥사까지 25분 정도 소요됨(구파발에서 택시이용도 가능)